

은 二次年度가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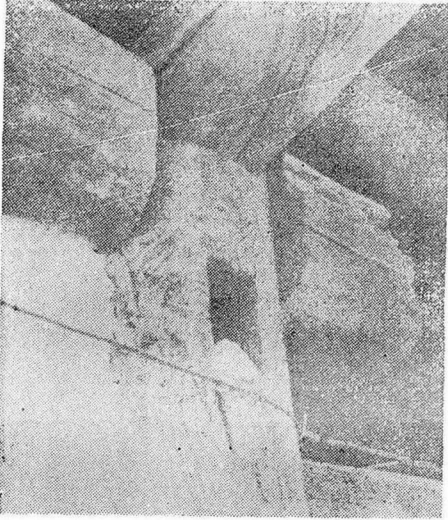
② 豫備調査次筆者와 같이 現地를 踏查하였다.

③ 拙稿 泗川 舊坪里 貝塚發掘調査概要(本誌 第八卷 第八號 通卷 第八五)

無拱牙系建物の一例

申 榮 勳

三國史記 卷三三 雜志 一 屋舍條에 四頭品과 百姓은 室의 長廣이 十五尺을 넘지 못하고 山楡木을 쓸 수 없으며 藻井을 배플지 못하고 唐瓦를 덮으면 안되고 獸頭와 겹쳐마 拱牙懸魚를 달 수 없으며 金銀과 鑰石이나 銅鐵으로 장식할 수 없다는 등의 建築制限令 條文이 실려 있다. 拱牙를 쓰면 안된다는 制約이 포함되어 있다. 五頭品에서 벌써 重楹



도 있을 수 없다고 하였다. 이렇게 지을 수 있는 집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 하는 것이 問題이다. 이러한 法規가 오늘날도 있어 制約을 가한다면 犯則하지 않고 지을 수 있는 집은 민도리집류의 모습으로나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민도리집이라는 짙은법은 기둥 윗몸에 장혀를 파 십자로 짙아 얹히고 그 위에 왕찌 짙은 도리를 올려 놓아 바로 서가래를 받게 한 無拱牙系의 樣式이다.

이러한 집은 지금 民家(第宅・邸宅類)에 속하지 않는 家屋에서나 볼 수 있는데 이렇게 民家에만 唯存하는 것은 오래전 新羅代로부터 내려오는 하나의 遺風이 蘊存하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문제가 內包되어 있다. 오늘날의 민도리집이 되기까지 오랜 기간 그 양식이 변천되었을까. 혹은 한 모습만을 간직한 채 흘러온 것인가를 찾아내고 脈을 짚어보는 수고가 있어야 이 문제의 해답을 찾게 될 것 같다.

해답을 얻게 되면 羅代以前의 모습 말하자면 先史民들이 草構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차차 익혀 내려온 그 結構手法에 줄이 닿아 原始住居의 한 形態를 짐작할 수 있는 데까지 치달아 올라가 볼 수 있게 될 것이다.

文獻에 보이는 有史生活初年人들의 上古住居의 形狀과 脈이 짚어진 結構手法과가 막들어 맞아 빈틈 없게만 되면 다른 地域(他國)의 그것과 견주어 뚜렷한 하나의 系統圖도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야기가 너무 커지고 거창하여졌지만 이렇게라도 하나 하나를 체크 하며 逆流하지 않고는 문제 해결에 접근조차 할 수 없겠다.

그러한 첫발디딤으로 慶州 鷄林鄉校 大門을 체크하고 잠깐 소개한 바 있었다.(註)

그간 몇 채의 住宅 등과 寺刹建物を 조사하면서 또 몇 가지의 知見을 넓혔다.

法住寺 捌相殿 東便의 僧房 北쪽 翼舍도 민도리집과 鷄林鄉校 大門과 의 中間쯤에 놓일 또 하나의 독특한 資料이므로 그것을 간단히 소개하고 싶다.

斯界의 關心이 여기에 모이면 無拱牙系建築樣式의 系譜가 머지않아 이루어지리라 믿는다.

二

僧房은 지금 境內 南北軸으로 놓인 큰 채와 東西로 놓인 작은 채가 있다.(新築中인 僧房 除外) 여기에 對象이 된 것은 東西軸에 놓인 작은

僧房이다.

맛배 단층의 기와집이다. 圓柱가 서로 대들보가 놓였고 대들보 중간에 대공이 서서 종도리를 받았다. 單楹인 셈이다.

기둥 위에 장혀를 꿰고 도리를 받은 모양새이다.

注目되는 부분은 보머리와 장혀와 도리가 짝여진 모습이다.

圓柱의 上端을 方柱처럼 깎아내어 턱을 내고 方柱形部分에 장혀를 짚고 보를 파서 내리 세웠다. 보가 方柱形狀을 전부 내려지지 못하여서 그 부분이 일부 노출되어 있다.

보는 原木를 생긴 모양대로 다듬어 놓은 동구리이나 운두보다는 폭이 넓게 보이게 되어서 보머리를 쳐다 보면 우습게 보인다.

圓柱끝을 다듬어 方柱처럼 한 예는 드물어 서울 南大門 中央高柱 등에서 볼 수 있을 정도이다.

鷄林鄉校 大門(以下 大門으로 略稱할)은 圓柱를 다듬지 않고 그냥 두어서 이것과는 구별된다.

민도리집은 대부분 方柱를 쓴다. 方柱는 圓柱에서 出發한 발달된 양식이라고 한다면 僧房의 기둥은 앞선 양식인 大門을 따라 동구리 기둥을 썼으면서 뒤에 나타날 方柱의 先驅의인 樣態를 暗示한 것이다.

기둥만으로 봐서 僧房은 大門과 민도리집과의 中間에 位置한다.

보의 모습은 大門과 흡사하나 민도리집과는 구별된다. 민도리집은 대략 남작보를 창방처럼 다듬어 쓴다.

보의 형태로 보면 민도리집보다 僧房과 大門은 古拙한 것이다.

보를 기둥머리에 짚는 모습이 서로 다르다. 민도리집은 장혀 왕찌위로 도리왕찌를 놓되 기둥머리 사갈이 보몸에까지 올라가는 것이고 僧房은 장혀만을 기둥몸에 짚고 축을 남겨 보에 관 홈에 박히게 되었다. (그중 일부는 장부턱을 만든) 大門은 기둥윗몸에 생긴 축에 보가 상투거리라고 보몸을 파서 도리를 얹게 하였다.

도리를 짚는 방법도 달라 민도리집은 보와 도리가 장혀 위에서 왕찌 짚이나 僧房과 大門은 보몸 위에 올려 놓이는 식이다. 大門과 僧房은 또 달라서 僧房은 보윗몸에 파진 홈에 얹을 장한 것이나 大門은 보몸을 폭

파고 내려 앉혀 기둥에서 올라온 축에 상투거리 되었다.

상투거리와 옆을장 십자맞춤은 技法上 아주 다른 것이다.

도리의 모습도 서로 다르다. 민도리집은 장혀 모습이었고 僧房은 뜬창방 같고 大門은 굴도리이다.

동근목재를 治材하여 方形部材로 만들려면 그만큼 發達된 道具 없이는 불가능하다. 도끼나 자귀로 쳐낼려서 方材를 만들 수는 있으나 그것은 극히 一部分 處理만이 가능할 뿐이고 割材에는 사용될 수 없다.

角材는 내림톱의 引鉅가 道具로 採用된 후어나 나타날 수 있는 것이므로 角材가 사용되었다는 것은 동구리 나무 그대로를 쓴 것보다 뒤진 시기에 등장하였다는 것을 自辨하는 것이다.

십자맞춤 등의 짚음법도 역시 톱과 끌이 상당한 수준까지 발달되어 있어야 가능한 것이므로 역시 빗잇이음에 구멍을 뚫고 축을 꿰어 固定시키려 하였던 意圖보다는 進歩된 것이다.

道具의 發達、鐵製道具가 自由로이 木手손에 入手되어 活用할 수 있었던 시대와 그렇지 못하였던 시대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어 자연 架構나 그 構成에 그것이 나타나게 마련이다.

이렇게 보면 鷄林鄉校 大門이 가장 原始的인 수법을 보인 것이고 다음이 法住寺僧房의 양식이며 다음에 민도리집의 형식이 놓이는 순서가 된다.

이들 서로의 사이에는 또 過渡的인 것이 있을 것이다. 그것이 찾아지는 날 이 系譜는 굳혀질 것이다. (一九六八年 九月七日記)

(註) 申榮勲·金東賢·韓國古建築斷章 架構上 (空間二卷六號) 參照

鄭嶺峙磨崖佛銘文과 淨蓮堂碑銘并序

金 鍾 太

全羅北道 南原郡 山內面 德洞里 鄭嶺峙의 磨崖佛 옆에 銘文이 있음은